

서평

박은순 지음,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
(돌베개, 2024)

유재빈*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는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畫)에 대한 저자의 오랜 고민이 집약된 기념비적인 저서이다. 저자는 1994년 「금강산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30년간 실경산수화에 대한 30여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 사이 저자는 여러 장르와 시대를 넘나들며 3권의 단독 저서와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산수화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이 책은 지난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단순한 논문 모음집이 아니라 몇 가지 관점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엮어낸 독립 저서이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는 일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책을 읽어보니 재집필의 과정을 통해 저자의 문제의식과 성과가 더 뚜렷이 전달되어 노고와 헛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은 모두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장에서는 진경산수화의 정의와 제작 배경을 다루고 II 장에서는 진경산수화에 대한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정리하였다. ‘진경산수화’라는 개념

*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과 그 개념이 함축한 연구의 무게를 책임감 있게 다루려는 태도를 읽을 수 있는 도입부이다.

Ⅲ장은 진경산수화의 제재와 관점을 다루고 있는데, 진경산수화를 내용상 6개의 주제 - 명승명소도, 야외아회도, 유거·정사·별서도, 구곡도, 공적실경도, 기행사경도 등으로 구분하고, 형식상 4개의 도법(圖法) - 다초점투시, 조망, 풍수, 원근투시 등으로 구분하였다. Ⅲ장이 진경산수화의 내용과 형식을 개괄하였다면 Ⅳ장은 시대적인 변화를 다루었다. 저자는 조선 후기 산수화가 18세기 초엽, 여행의 현장성을 강조한 정선(鄭敎)의 ‘천기론적(天氣論的) 진경산수화’에서 출발하였다고 보았다. 18세기 중엽에는 선비 화가들의 자의식을 담은 ‘사의적(寫意的) 진경산수화’가 등장하여 19세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지속되었다. 그리고 18세기 말엽 경에는 서양화풍의 수용과 함께 ‘사실적(事實的) 진경산수화’가 크게 유행하였다. 이처럼 저자는 화풍만이 아니라 산수화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18세기 변화상을 흥미롭게 서술하였다.

V장은 겹재 정선을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정선의 작품을 그대로 소개하기보다 정선을 둘러싼 연구사적 배경, 교류와 후원 등의 사회적 배경, 서양화법과 고지도 도법과 같은 회화적 배경을 면밀히 고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선 개인의 신화를 걷어내고 시대인으로 그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다양한 관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강세황(姜世晃) 실경산수화를 통해 작가성을 탐구하거나 남한강(南漢江) 산수화를 통해 지역성에 주목한 연구 등을 실었다.

이처럼 이 책의 체계적인 구성은 마치 처음부터 기획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오랜 연구의 결과이다. 이 때문에 한 권의 책 안에서 저자가 거쳐 온 학문적 관심과 방법론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저자가 「금강산도 연구」를 집필할 당시부터 적용해온 양식사(樣式史)적 분석은 이후에도 다양한 산수화를 연구하는 분석틀이 되었다. 저자의 철저한 양식적 방법론은 진경산수화를 개괄한 Ⅲ장과 Ⅳ장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저자는 2000년대 이후 후원자 문제, 물질문화와 시각문화의 문제 등 서양미술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책의 V장과 VI장에서 정선과 소론(少論) 관료의 관계를 다룬 글이나, 관료의 공적인 여행인 환력(宦歷)과 지방 실경산수화의 관계를 다룬 글 등에서 이러한 시각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저자의 개인적인 관심의 이동인 동시에 미술사 학계의 방법론적 변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저자는 책머리에도 밝혔듯이 한국의 사상과 역사적 맥락을 담을 수 있는 “한국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저자는 덕성여대에 재직하던 시절에 ‘동양미술사 방법론’이라는 보기 드문 과목을 학부에 개설하기도 하였다. 이 책에서도 저자

의 한국적 방법론에 대한 추구를 살필 수 있는데, 동양의 지리인식인 ‘풍수론(風水論)’, 문학이론인 ‘천기론(天氣論)’, 문학 장르인 ‘누정문학(樓亭文學)’을 토대로 실경산수화를 분석한 연구가 그 예이다.

저자의 실경산수화에 대한 30여 편의 연구 가운데 아쉽게도 저서에 포함되지 못한 글이 10여 편 남아 있다. 조선 초·중기, 그리고 19세기 이후의 실경산수화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 책의 범주인 ‘조선 후기’라는 시대 밖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18세기에 제작된 실경산수화’인 ‘진경산수화’의 시대적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감하게 이 연구들을 책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특징을 명확히 보기 위해서는 그 이전과 이후의 상황도 반드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 전기나 말기의 산수화를 다룬 저자의 다음 책이 더욱 기다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평을 마무리하던 중 이 책이 제38회 우현학술상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을 접했다. 오랜 연구의 성과가 축적된 이 저작의 학문적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였다.